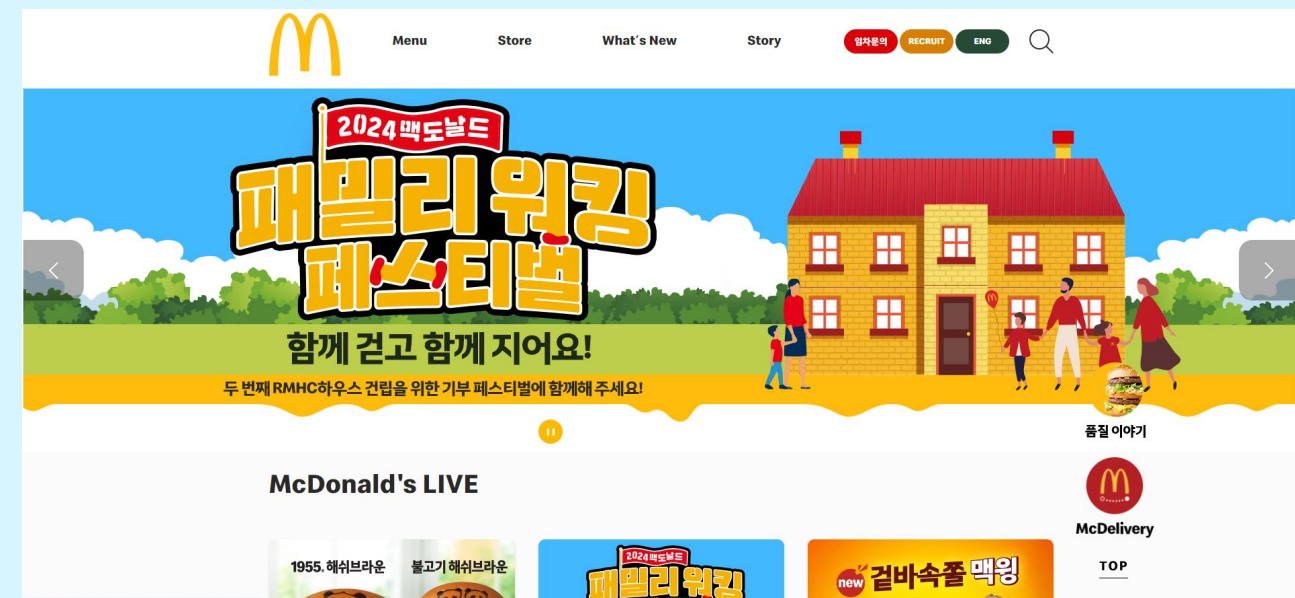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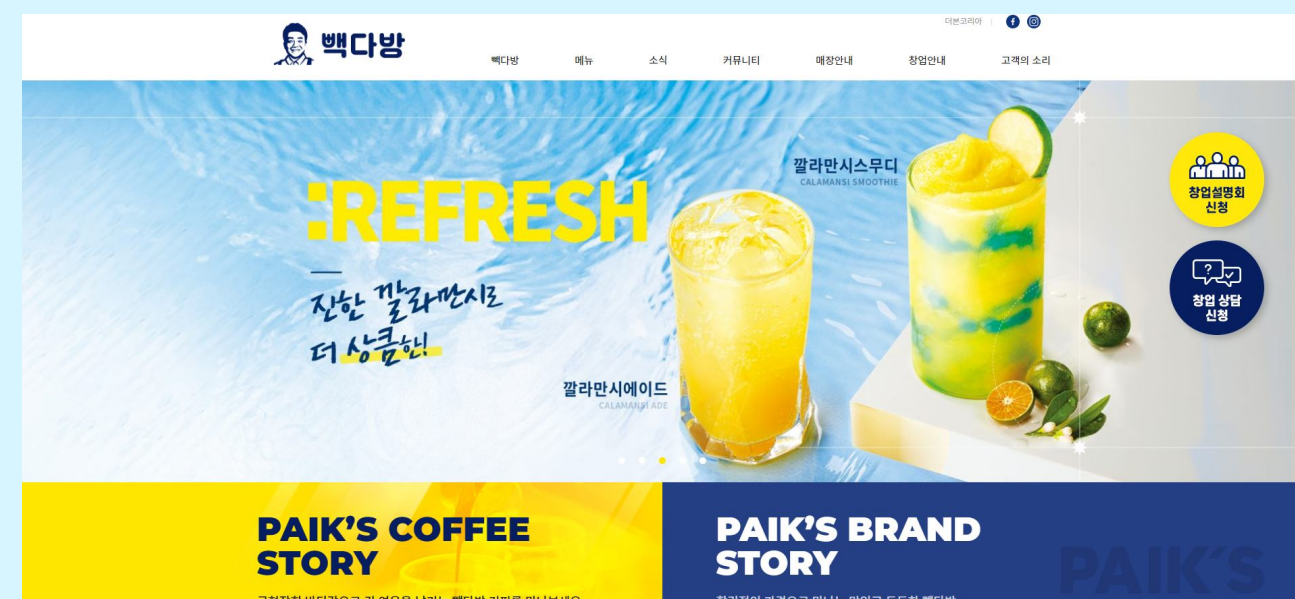


그릭데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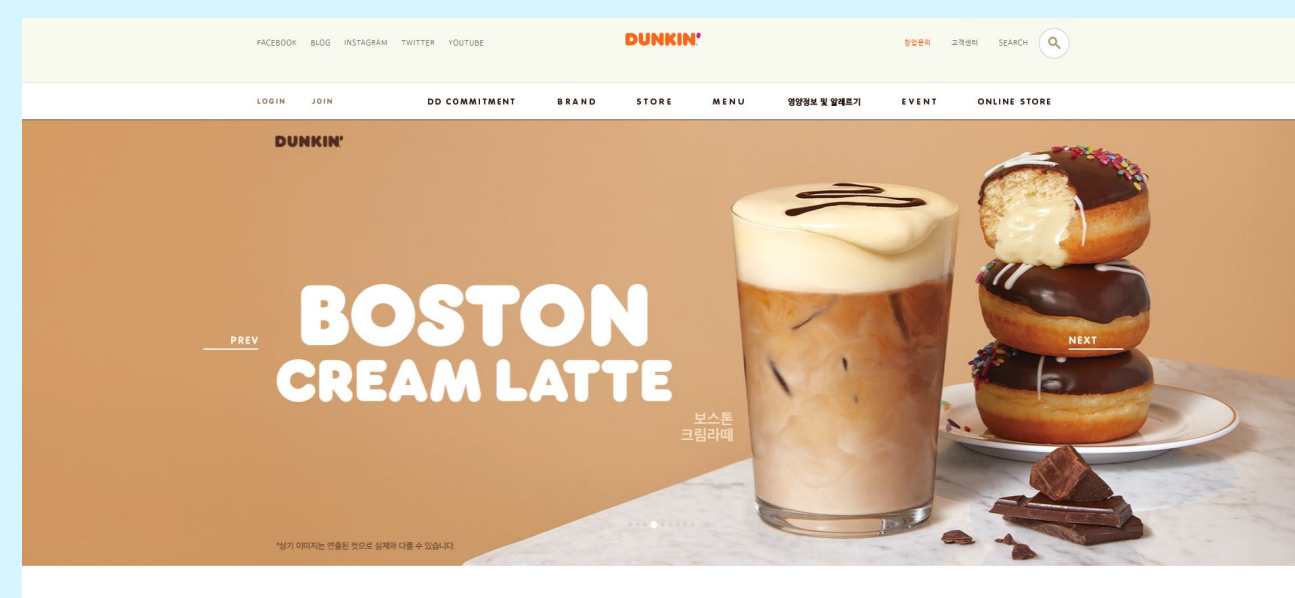
2024/05/07
이희진



‘맥도날드 웹 사이트’
→ 맥도날드 시그니처 컬러인 레드와 옐로우 컬러를 이용해 시선이 집중되는
느낌을 준다.
아이들이 그림이 있어, 가족과 함께 즐기 좋은 음식이란 인식을 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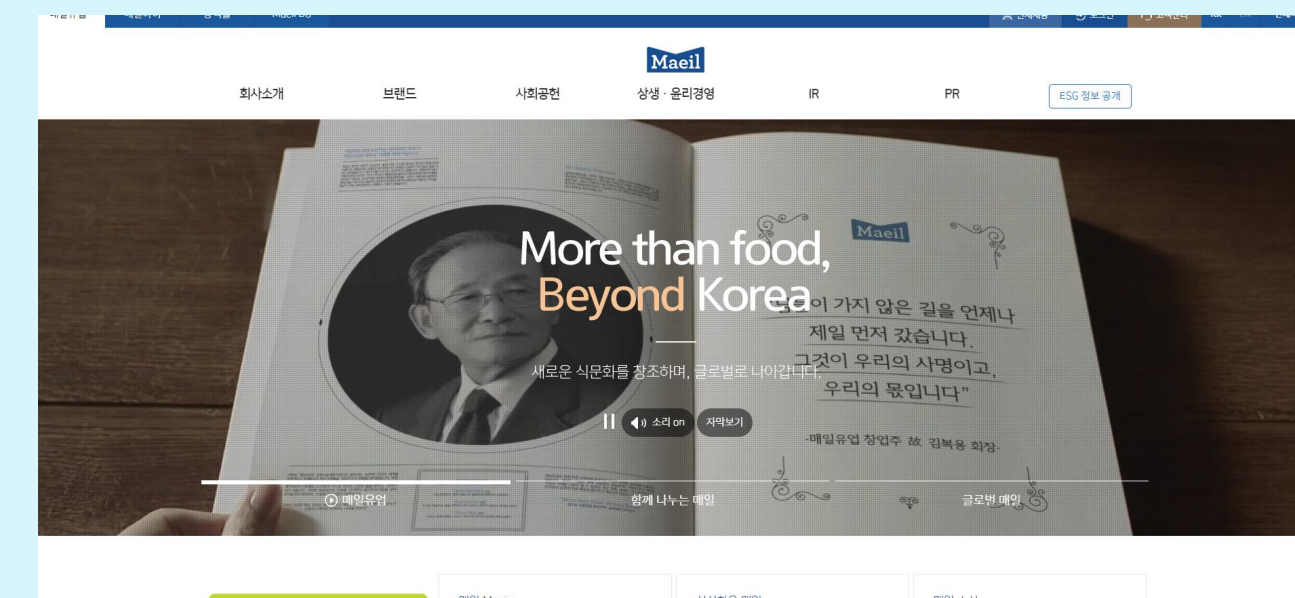


→ 여름시즌에 맞게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시원한 느낌을 준다.
메인 음료 사진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눈길이 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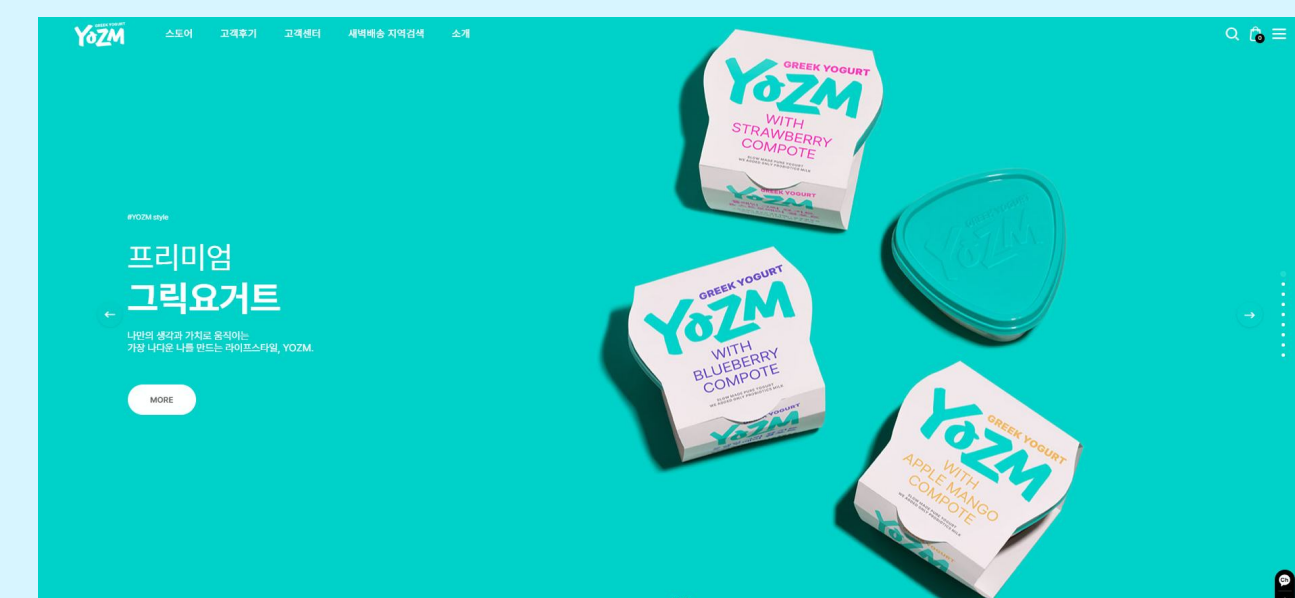


→ 도넛 브랜드에 걸맞게 연한 베이지 톤의 컬러를 이용하여 따뜻한 느낌을 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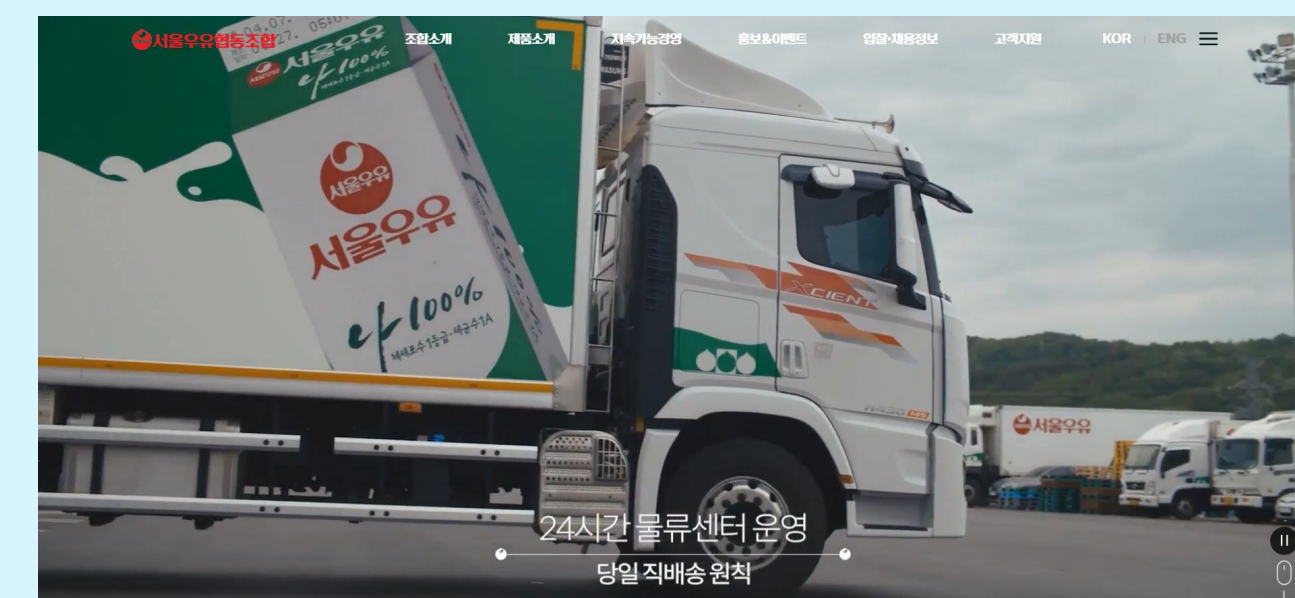
검색 표시와 카테고리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어, 한눈에 찾기가 쉬워보인다.



→ 빈 공간과 매일유업 역사가 담긴 영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준다.
여백과 상단 푸른 컬러로 깨끗한 느낌을 준다.



‘요즘(Yozm) 웹 사이트’
→ 강한 민트 컬러가 그리스요거트와 잘 어울린다.
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패키지의 제품 사진으로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브랜드
명칭이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만들어준다.



‘서울유유 웹 사이트’
→ 물류 이동 영상을 통해 ‘당일 직배송’을 강조하여 신선한 느낌을 준다.
전체적으로 회색빛이 도는 컬러감에 다소 칙칙할 수 있으나, 서울유유의 초록
컬러가 눈에 잘 보인다.

